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부터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찬양대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공감>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 부서장들은 한 해의 활동 및 재정을 정리해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1층 로비에 준비된 서식에 새로운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경기가 오늘 오후 3시 한강이촌지구 거북구장에서 열립니다.

손규현 씨와 오보영 씨의 결혼식이 12월 3일(토) 오후 2시 30분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림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 이상,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켜고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식 당 봉 사 :	유경순 이은옥 최경미 이수정 이은정 최재욱 김윤수
12/4 식당 봉사 :	장혜숙 박성실 원인해 정경례 심상숙 이근식 최영혜
	이선희 김신옥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노우종 임주빈 허호범
다음 주 설거지 :	김종락 박영신 박인혁 유상진
새 교 우 :	김종술(2남) 박미란 (5여) 오봉환(청년) 이애리(청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0(통34). 전능왕 오셔서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 가득한 참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참빛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불길들을 다 끄게 도와 주십시오. 이기적인 탐욕의 불길, 끝도 없는 근심의 불길, 나 자신과 남을 태워버리는 미움의 불길을 끄게 도와 주십시오. 고요한 어둠 가운데서 생명과 평화, 사랑과 진리의 참빛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놓여 있는 커다란 장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나와 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규정한 채 서로 불신하며, 오랜 시간 동안 미움으로 쌓아올린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너의 사된 이익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애3:21-23 인도자
 ♠ 교 독 문 115. 구주 강림(1)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98. 예수님 오소서 다함께
 ♠ 성경봉독 I. 엠2:1-10 이성경 선생
 II. 롬13:11-14 김정애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씀 I. 우리는 한 편의 시입니다 이성운전도사
 II.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김근종 정옥영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광혜자 문복순 최현선 박시내 서원금 오자영 윤미경
 윤수진 장원호 박성희 허호범 박성실 조병억 조정연 이광용 형인순
 한인철 조운숙 정선희 이용규 노지현 이영우 광새롬

월정헌금: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송임희 정완수 김재광 최윤희 이윤석 박안수
 장동훈 조은나 차혜심 이준림 허명선 이주율 김범진 김미현 최재욱
 이수정 이영우

감사헌금:

한인철 조운숙 홍순구 안홍숙 박경일 박병구 김경혜 이재문 조관행
 홍선희 조연우 박옥순 무명8

생일감사헌금:

조병무 조관행 홍선희

녹색꿈헌금:

임미심 김범진 김미현 감미성 이선화 조연우 무명1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배부례
	임정자	최경미	최경미	차혜심
	문영혜	이명희	문영혜	김진경
	안정숙	진정숙	안정숙	문금석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김재광	김필순
	안홍숙	오현정	정현국	이수정
	정영선	이현숙	홍춘숙	송양진
	이영란	박미영	이현순	이영란
	박혜경	조항미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마음으로 읽는 글

하늘이 보이는 때

하늘은/ 늘 열리어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메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만
하늘은 보이는 것입니다

늘/ 하늘 아래 살면서도
참 오랜만에야 하늘을 보는 것은
이따금씩만/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볼 적마다
이제는 늘 하늘을 보며 살자 마음먹지만
그러한 생각은/ 곧 잊히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은 열리어 있지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에야/ 참 오랜만에야
하늘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복숙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 양	428(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참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둠에서 나와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거짓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다함께 :	아멘. 탐욕과 게으름의 잠에 취해 주님이 찾아오고 계심도 모르고 지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삶의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작은 음악회 <공감>	고린도전서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최희영 선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이형숙 권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종락 김대근 박영신 백성래 정현숙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별의 노래를 듣다

해가 저물면 5시 30분에 저녁식사를 한다. 노동으로 흘린 땀도 씻고 저녁 기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가 조금 빠른 편이다. 학교에 다녀와서 닭, 염소 돌보기와 놀기에 정신 팔려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식탁으로 몰려들면 시장 바닥처럼 왁자지껄하다. “식사 자리가 너무 시끄러워 정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노동이든 공부든 하루를 잘 마쳤으니 저녁식사를 감사의 축제로 삼는 것이다.

저녁기도를 마치면 8시인데 비로소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다. 낮 동안 분주했던 가족들은 자녀들과 함께 평온한 성가정 시간을 맞는다. 이렇게 해서 하루 가운데 노동과 친교와 침묵의 시간이 저절로 구분된다.

10시도 안 되어 가정사家庭舍의 불빛들이 사라지면 다시는 깨어날 것 같지 않은 깊은 침묵과 안식의 세계로 빠져든다.

저녁 늦게 학원에서 돌아오고, 밤늦게 퇴근하고, 깊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과 게임을 하는, 침묵도 대화도 아닌 도시의 시간은 버린 지 오래다.

밤이 오면 온 천지가 암흑이다. 밤이란 것이 느껴진다. 최근에는 구인사로 넘어가는 보발재에 가로등이 하나 가설되어 4킬로미터는 족히 떨어진 곳의 불빛이 먼 바다의 등대처럼 반짝일 뿐 어디를 보아도 칠흑 같은 어둠이다. 소백산도 능선만 보인다. 손님들은 이런 어둠을 낯설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등스위치를 마구 올려놓는다.

마을의 전등은 가로등을 포함해 모두 15~20와트 전구를 쓴다. 도시에서야 15와트 축광으로는 비상등 구실도 할 수 없지만 이곳에선 촛불 하나로 8평 실내를 훤히 밝힐 수 있고, 15와트 전구 하나면 온 마당을 밝히기에 충분하다. 어둠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밤에도 낮보다 더 밝아야만 볼 수 있다. 눈의 조리개 기능이 뒤바뀐 것이다. 그래도 다시 어둠의 세계에서 살게 되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

달이 뜨면 마을의 밤은 그야말로 백야다. 유럽의 백야만큼 밝지는 않지만 반달만 떠 있어도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여서 화장실 가는 데도 손전등이 전혀 필요 없다. 소백산 선녀들이 달빛을 타고 구봉팔문을 들락거리

는 듯하다. 달이 뜨지 않는 날 밤의 골짜기는 칠흑 같은 어둠속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빛난다.

겨울이 아니어도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에는 별들이 아주 가까이 떠 있어서 장대로 휘두르면 엄청 쏟아질 듯하다. 이런 풍경을 누리려는 것은 귀농하여 사는 이들, 특별히 산촌 깊이 들어와 사는 이들만의 특권일 것이다. 감사할 일이다.

손님으로 찾아온 아이들은 영상으로만 보던 별 그림이 실제 하늘에 펼쳐짐에 놀라고,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또 놀란다. “저것이 바로 은하수란다” 하고 가르쳐주면 은하수가 특별하게 생긴 별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청년들 중에도 의외로 많다. 땅은 있어도 흙이 없고, 밤은 있어도 어둠이 없고, 하늘은 있어도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

별을 보면서 ‘귀농’의 의미를 새겨본다. ‘농農’이란 글자는 ‘별 辰辰’ 위에 ‘노래할 곡曲’을 붙인다. ‘별의 노래를 듣는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굽을 곡曲’으로 절기의 리듬을 따르는 일이 농사라는 뜻일까? 잘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은하수를 보면서 오작교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던 동심의 나라에 사는 삶이 귀농이라 생각한들 어떠한가. 이제는 이미 해체되어버린 신화와 전설의 세계를 동경하는 삶으로, 그래서 위성안테나가 아니라 영성세계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려는 귀의의 삶이 진정한 귀농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 때로 기억한다. 우리 동네 친척 집에 놀러온 도시 아이가 나에게 말했다.

“저기 저게 내 별인데, 너의 별은 어떤 거니?”

그 말이 너무 엉뚱하면서도 신기하게 들렸다. 하늘의 별에 주인이 있다는 말도 신기했고, 그 많은 별들 중에 나의 별도 있다는 말은 더 신기해서 내가 동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